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1주일(성 요셉 성월)
제31권 16호(가해) 2011.3.13

[묵상]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메시아로서 공생황을 시작하시기전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나가십니다.
40일 동안의 이 시간은
어떤 메시아가 될지 결정되는 시간이며
그 모습에 따라 성패여부도 결정될 겁니다.

메시아를 원치 않는 사탄은
인간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라고 유혹합니다.
인간의 배를 불러 만족케 하라,
재물을 보장해주는 메시아를 원한다.
인간은 신기한 현상들에 열광한다,
욕구를 채워주는 기적들로 그들을 사로잡아라.
인간은 권세와 부귀영화를 최고로 여긴다,
최고의 권력으로 그들을 다스려라.

하느님이 원하시는 메시아가 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오로지 하느님 말씀에 힘입어
하느님을 시험치 않고 온전히 믿고
하느님만을 섬기는 메시아가 되리라.

참 메시아가 되길 원하시는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칩니다.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수 요 일	저 녀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저 녀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아 침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 일	아 침 미 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 요 일	성 시 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 요 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 요 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 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에 아도라뎌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성낙호 요셉 & 성은혜 실비아
주 일	(연)강용운 요셉, 최진 바실리오, 박송희, 김시형 시릴로,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홍숙녀 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 황득수
낮 미사	(생)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이근모 마리노 & 이행자 리드비나, 이영희 카타리나, 고규재 체칠리아, 김스텔라, 안성진 자수아, 안나회원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 2,7-9; 3,1-7

화답송 ○주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팔꿈치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자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소서,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5,12-19 또는 5,12.17-19

복음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환호송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복음 마태오(Matthew) 4,1-11

영성체송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50	157	156
봉헌	258	155	269
성체	279	308	303
파견	153	153	149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생명의 백성, 생명을 위한 백성

그러나 이러한 공동 참여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도록"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각 개인의 책임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루가 10,37). 우리 모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례와 우리의 존재 전체 안에서 그것을 거행하고, 생명을 지원하고 증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조직으로 그것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

▶생명의 복음을 선포함

80). "그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1요한 1,1.3). 예수께서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내놓을 다른 증거도 없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바로 "생명의 말씀" (1요한 1,1) 이시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서 "그 생명이 나타났으며" (1요한 1,2), 그분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영원한 생명" (1요한 1,2) 이시다. 성령의 선물에 의하여 바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모든 사람들의 지상 생명은, 그것이 완전한 생명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운명지어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그 충분한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받는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그 놀라운 참신함을 증언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 생명의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며, 죄에서 오는 것으로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낡은 것"을 처부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인간적인 기대를 초월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은총을 통해서 들어올려질 수 있는 그 숭고한 높이를 드러내 보여준다.

나사의 성 그레고리오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한다. "인간은 하나의 존재로서 보잘것 없습니다. 그는 먼지이고 풀이며 덧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단 우주의 하느님에 의해서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나면 그 존재하시는 분(Being)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분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은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이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말, 어떤 생각, 또는 어떤 비상(飛上)하는 정신이 감히 이 넘쳐흐르는 은총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초월하게 됩니다. 죽을 운명인 그가 죽지 않게 되고, 사라져버릴 그가 불멸의 존재가 되며, 덧없는 존재인 그가 영원한 존재가 되고, 인간인 그가 신성한 존재가 됩니다." (◆계속)

유혹은 내 집착의 그림자

무릇 삶이란 살아 있을 때 향기를 간직하고 삶이 다한 자리에 울림으로 자리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봄기운 한가득 아지랑이 피어나는 그 길가에서 삶의 향기를 간직하기 위해 오늘도 술한 떨림 속에 자리하는 삶이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 떨림만큼 울림을 간직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언젠가 선배 신부님께서 기도란 “자신이 집착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 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유혹 마음속에 와 닿았던 것은 내 집착의 드러남이 유혹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착하지도 않는 것에 유혹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유혹이란 내 집착하는 것의 드러남이고 기도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올 유혹의 실체를 확인하게 하는 작업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황량한 모래 언덕만이 자리한 그곳은 간혹 보이는 산조차 산이라 말하기 어색한 흙과 돌로 이루어진 언덕 같은 곳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네 산이 철따라 옷을 갈아입어 사람의 눈길을 끌어당긴다면 이스라엘 광야는 맨몸, 맨살을 속절없이 내보이는 통에 보는 이가 오히려 난처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자연의 풍요로움에 마음의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입고 있던 옷조차 벗어 던져주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광야는 빛의 색깔이 그 어디보다 묘한 여운을 남기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시시각각 태양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 음영이 드러나는 것이 마치 하느님의 햇살에 의지해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광야를 찾으신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였을 겁니다.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하는 삶, 인간이 자신을 가리고자 입은 온갖 옷들을 벗어 던진 채 오직 하느님의 손길로만 자신을 치장하고자 하는 열정이 살아 숨 쉬는 곳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이란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이 입고 있는 위선과 거짓, 탐욕의 실체를 유혹의 그림자를 통해 확인해 보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한 끼만 굶어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나약함을 마주해야 하는 곳, 채워질 수 없는 탐욕의 창고와 결코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욕망의 깊이를 위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하느님의 따사로운 햇살 한 조각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삶이었는데, 어찌하다 이렇게 덧씌워진 욕망들의 두터운 옷들에 의지하며 살아야 했는지 되돌아켜 보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순절이 은총의 시간일 수 있음은 하느님으로만 지탱되어지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자리하기 때문이고, 단지 고통과 고난으로 초대된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천사를 시켜 손수 시중들기 위해 초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에게 광야가 그러했듯이...

◆권철호 다니엘 신부 /

서울대교구 삼각지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박소영 프란치스카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서용숙 에스텔	김금자 테레사
제물봉헌자			P.V. 2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당	신중철 아브라함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권오상 바오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권순길 세실리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사순시기 ✦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7:30 저녁미사**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아침미사가 오후 7시30분으로 변경됩니다. 미사후 ‘십자가의 길’ 기도가 구역순으로 진행됩니다.
 - 사순 제1주일 금요일(3월18일) : 토런스 서구역
 - 사순 제2주일 금요일(3월25일) : 토런스 남구역
 - 사순 제3주일 금요일(4월1일) : 토런스 북구역
 - 사순 제4주일 금요일(4월8일) : 하버/카슨 구역
 - 사순 제5주일 금요일(4월15일) : P.V. 구역
-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가 재의 수요일부터 준비됩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사순절 희생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21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 사순 관공성사 : 4월6일(수)
 - 미사 및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도 같은 일정)
 - 공동보속 : ①로마서 통독 ②선행1회 ③주모경 1회 이중 두가지 이상 선택.

* 사순에 드리는 고해성사는 관공성사로 올려드립니다.

◆ 사순 특강

- 일시 : 오늘 주일(13일)과 20일 주일, 낮미사후 성전
- 강사 : 이장환 마르티노 본당 신부님
- 주제 : 신앙의 위기와 성숙(13일 강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희망(20일 강의)

◆ LA 대교구 생명존중(Life & Dignity)주일

오늘은 LA 대교구 샌 피드로 사목 지역의 '생명과 존엄성' 주일입니다. 오스카 솔리스 지역담당 주교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시민이 되어 가톨릭의 책임을 다하라고 지정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주에

서 강력하고 분명한 도덕적인 목소리를 내는 가톨릭 입법 Network(CLN)에 등록할 기회를 갖도록 초대 받았습니다. 등록하는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CLN에 등록함으로써 사회적·정치적 중요한 이슈에 여러분의 지원을 요청하는 부름에 응답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을 못하신다면 온라인 사이트인 www.cacatholic.org에 접속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백삼위 제단체 친선농구대회

- 일시 : 오늘 주일(13일) 사순특강 후 오후 2시 농구장
- 참가단체 : 양업회, 대건회, 원서부부회, 청년회 여성팀(변외) : 자모회, 주일학교+청년회
- 경기방식 : 토너먼트, 전후반 12분씩, 중간휴식 5분
- 선수구성 : 5명(대진팀 제비뽑기로 당일 결정)
- 참가비 : 단체별 \$50(변외팀 제외)
- 우승상금 : Cash

◆ 제 67차 남가주 한인 ME 첫주말 수강생 모집

- 날짜 : 2011.5.6(금)-5.8(일)
- 장소 : Mary & Joseph Retreat Center
- 등록비 : \$50(부부당)
- 문의 : 본당 ME 대표부부
김성현 유스티노 & 최연 루시아 ☎(213)458-3356

◆ 세례, 견진 사진을 꼭 찾아가십시오.

지난 성탄세례와 2월견진 사진이 사무실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아침성가대(아도라페) 단원 모집

- 관심있는 교우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문의 : 김비비안나 ☎(213)407-0487, 정테레사 ☎(310)650-6933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3월13일(주일) : 토런스 남 1반(장터국수 \$3)
- 3월20일(주일) : 토런스 북 1반(콩나물비빔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구자운	국세찬	권오상	김광일	김교복	김기석
	김인정	김낙기	김선제	김성일	김양금	김 옥	김 옥
	김 옥	김원도	김원호	김유숙	김 은	김정희	김종렬
	김충섭	남명자	노천수	민기남	박광자	박봉성	박선희
	박씨니	박정희	박현주	박홍룡	방정복	배기열	석순영
	송준규	송호창	신대식	신현화	안재만	양영관	오수인
	원건희	유정자	이귀분	이근모	이명자	이봉덕	이상석
	이소영	이연행	이용무	이은록	이효세	이희영	장영우
	정규숙	정동호	정명도	정지숙	조운영	조화숙	주대중
	주영석	차병용	최원석	최이원	최태훈	주서희	황학수
	영희가보라	한길선례	박제이콧	합계 : \$7,120			
	미사헌금 : \$2,951	2차헌금 : \$1,062					

성전헌금	강인모	구자운	국세찬	권오상	김광일	김교복	김기석
	김인정	김낙기	김선제	김성일	김양금	김 옥	김 옥
	김원모	김원호	김유숙	김정희	김종섭	남명자	노천수
	민기남	박광자	박봉성	박선희	박씨니	박정희	박현주
	방정복	배기열	석순영	송호창	신대식	신현화	안재만
	양영관	오수인	원건희	유정자	이귀분	이근모	이명자
	이상석	이용무	이은록	이효세	이희영	장영우	정규숙
	정동호	정명도	정지숙	조화숙	주대중	주영석	차병용
	최원석	최이원	최태훈	영희가보라	한길선례	박제이콧	
	합계 : \$4,820						
	감사헌금 : 김선제				주보광고 후원 : \$1,750(감사합니다.)		

공지사항

◆ 백삼위한국학교 SAT II 한국어 시험일정 안내

- 일시 : 3월20일(주일) 낮12시 2층교실
- 신청비 : \$1 *대상 : 한국어 모의고사를 원하는 모든 학생
- 문의 : 이헬레나 교장 ☎(310)422-0066

◆ 주일학교 사순 피정

- 일시 : 4월1일(금)~3일(주일) 오후 4시 성당 출발
- 장소 : 데메쿨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7학년~12학년
- 참가비 \$50(\$70, 3월14일 이후)
- 신청마감 3월21일 * 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사무실

◆ 고등부 견진성사

- 일정 : 5월 13일(오후 7시30분-9시): 리허설
5월19일 (오후7시): Reflection
5월20일(오후7시): 견진성사
- 장소 : St. Margaret Mary 본당(Lomita)
- 신청비 : \$30 (식사비 포함) *신청: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 대상자 : 주일학교 10학년 이상으로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학생 *대상자는 위 3일일정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 본당설립30주년 기념 종합예술대전 준비

- 일시 : 9월18일(주일)~24일(토)
- 전시작품 : 서양화, 동양화, 조각, 서예, 사진, 공예, 퀼트, 한국화, 민화, 꽃꽂이 등 백삼위교우들의 취미활동 작품
- 가칭 준비위원 : 김윤진 카타리나, 김선제 바오로, 한장환 안토니오, 이명순 크리스티나, 이명렬 라파엘, 김선영 글라라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남가주 소식

◆ 성모님을 통한 예수님께 드리는 봉헌 및 봉헌갱신미사

- 일시 : 3월25일(금) 오후 7시
- 장소 : LA 성 바실 천주교회 본당(637 킹슬라 드라이브)
- 미사집전 : 박기준 라우렌시오 신부

◆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자 영어피정

- 일시 : 4월21일(목)~24일(주일)
- 주제 : Come and See!(와서 보라!)
- 대상 : 선교사제 성소에 관심있는 20~31세의 남성
- 장소 : 텍사스주 엘파소의 성골롬반 선교센터
- 문의 : 성소담당 최용훈 요셉 신부 ☎(323)388-7737

◆ 가톨릭신문사 주최 제2회 정통 크루즈 성지 순례

- 일시 : 4월27일부터 15박16일
- 내용 : 이탈리아, 이스라엘, 그리스, 터키 4개국
- 경비 : \$4,300(라지내측), \$5,100(발코니)
- 문의 : 삼호관광 ☎(213)427-5500

소공동체 3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신현화 헬레나 533-0454 3/11(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신중철 아브라함 530-7702 3/12(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박인식 토마스 989-0366 3/20(주일) 오후 5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박상원 야고보 323-7624101 3/12(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이기숙 엘리사벳 650-1515 3/14(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현석주 아오스딩 433-9075 3/25(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양희숙 오티리아 972-9193 3/9(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크리스티나 750-4051	김유미 사비나 738-5305 3/12(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이용식 베드로 516-0818 3/11(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종열 토마스아퀴나스 784-0460 3/12(토) 오후 7시30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377-6659 3/11(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4-8908 3/12(토) 오후 6시30분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허정자 리타 377-3820 3/1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변복순 베로니카 592-6945 3/8(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2011년 사순 시기 담화문(요약)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났습니다.”(콜로 2,12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 시기는 거룩한 부활 축제로 나아가는 교회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전례 시기입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이 사순 시기를 열심히 지낼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아 세례는 세례가 참으로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밝혀 줍니다. 아무도 자기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죄를 없애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필리 2,5)을 체험하게 해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거저 베풀어집니다. 세례는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며, 이 만남은 세례 받은 이에게 하느님 생명을 주고 진정한 회개로 불러 그의 전 실존을 형성시켜 줍니다. 세례와 사순 시기는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사순 시기는 이 구원 은총을 체험하는 좋은 시기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부활 성야와 세례를 연결시켜 왔습니다. 이 세례성사를 통하여 위대한 신비, 곧 사람이 죄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동참하게 되며,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하느님의 영(로마 8,11 참조)을 받는 위대한 신비가 실현됩니다. 사순 시기는 예비 신자 기간과 같은 여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비신자들은 새로 나는 성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세례 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더욱 온전히 바치며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새롭고도 단호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는 말씀을 전해 주시고자 하시며, 거기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히브 4,12 참조) 주님을 따르겠다는 우리 의지를 다집니다.

복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요한 9,35).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모든 신자들의 목소리로 “주님, 저는 믿습니다.”(요한 9,38)라고 기쁨에 넘쳐 외칩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은 우리가 우리 실존의 궁극적 의미에 눈뜨게 해 줍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깊이 참여



하여 우리 마음이 날마다 물질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고 ‘세상’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해 줍니다. 사순 시기는 회개의 표현인 단식과 자선과 기도라는 전통적 실천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단식은 다양한 동기로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깊은 종교적 의미를 지닙니다.

단식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더욱 마음을 열어 하느님 사랑이 이웃 사랑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마르 12,31 참조). 교회는 특별히 사순 시기 동안 자선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일깨웁니다. 자선은 나누는 힘입니다. 자선 행위는 하느님의 우선권을 일깨우고 우리의 관심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고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고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면서 소중하고 필수적인 기도 방법을 배웁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사순 시기의 여정은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필리 3,10) 우리 삶에서 깊은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사순 시기는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우리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해성사의 새롭게 하는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결연하게 나아가는 은혜로운 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욱 헌신적으로 참되게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세례성사가 의미하고 실현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여정에서, 하느님 말씀을 신앙과 욕심으로 낳으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를 맡겨 드립니다.

◆ 교황 베네딕토 16세

(전문은 ‘<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 참조)